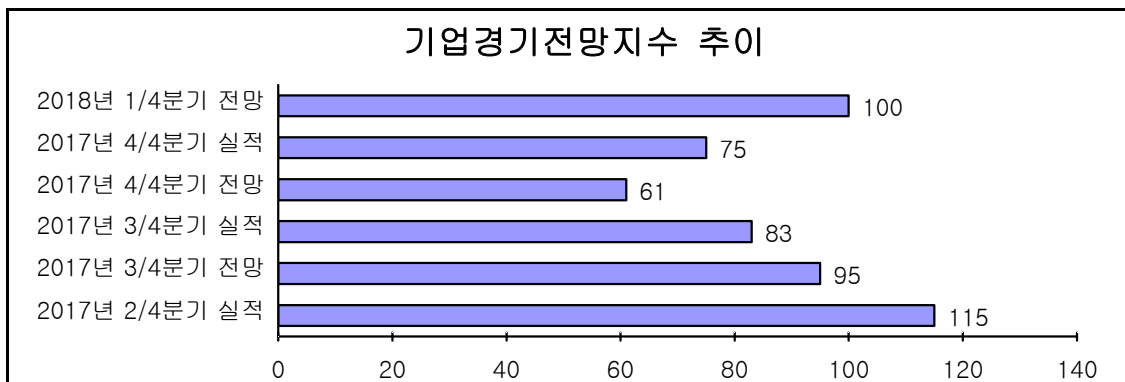
 <b>영주상공회의소</b> 調査結果	<b>2018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b>
회원조사과 054)632-8830	회원사 30개 표본업체 조사 결과

영주상공회의소(회장 송화선)는 최근 회원사(제조업체) 30개를 표본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2018년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는 지난분기보다 '39' 포인트 상승한 '100' 을 기록했다. 실적추정치는 전 분기보다 '8'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 한 것으로 0 ~ 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다.



**부분별 기업경기전망지수 추이**

	2017년 2/4분기 실적	2017년 3/4분기 전망	2017년 3/4분기 실적	2017년 4/4분기 전망	2017년 4/4분기 실적	2018년 1/4분기 전망
체감경기	111	88	86	70	63	93
매출액	126	96	84	62	78	107
설비투자 (영업이익)	111	92	(81)	(55)	(76)	(97)
자금조달여건	111	104	82	62	80	100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2018년 1/4분기 기업경기 전망은 체감경기 93, 매출액은 107, 영업이익 97, 자금사정 100 로 대체적으로 1/4분기 전망은 4/4분

기 전망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2017년에 비해 2018년의 경제 흐름을 묻는 질문에 올해와 비슷(51.61%), 악화(25.8%), 호전(22.6%) 순이며, 대내리스크 요인으로는 달라진 노동환경(35.4%),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29.2%), 가계부채(14.6%), 기타(12.5%) 등이 집계됐다 . <복수응답>

실제로 새해 기업경영의 대외 불확실성을 묻는 질문에 환율변동(47.2%), 통상마찰 우려(18.2%), 북핵 리스크(13.6%), 세계적 긴축분위기(9%) 등이 집계됐다 . <복수응답>

2017년과 비교해 2018년 신규채용 인원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한 설문에는 ‘계획 못 세움’ (53.3%), ‘2017년보다 늘릴 것’ (26.7%) 순으로 신규채용에 대한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한 곳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영주상의는 “지난해 3%대 성장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반도체와 수출 호조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며 “2년 연속 3%대 성장 굳히기를 이어가려면, 통상마찰 · 북핵 리스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리스크 관리와 노동환경 변화, 환율변동 등에 대한 기업 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 조사기간 : 2017. 12. 4 ~ 12. 15 (휴일제외 10일 동안)
- 조사대상 : 영주지역 조사대상 표본업체
- 조사방법 : 대면, 전화, FAX
- BSI의 기준치는 100. 100 초과는 호전예상업체가 악화예상업체보다 많음을 의미. 100 미만일 때는 반대임
- BSI 지수=[(호전예상업체수-악화예상업체수)÷ 전체응답업체수] × 100 + 100
- BSI전망치는 다음분기에 대한 전망치임